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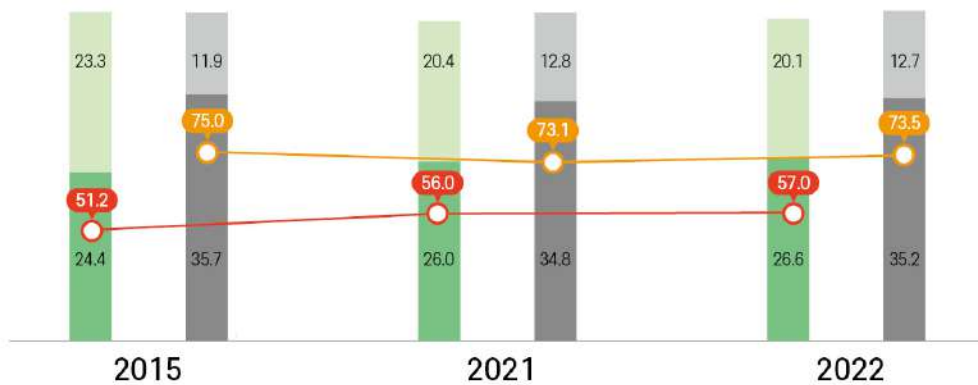
7. 노동 및 소득

경제활동

'22년 하반기 기준,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73.5%, 여성 57.0%임

경제활동인구(2015~2022)

○ 경제활동 참가율(여성) ○ 경제활동 참가율(남성) ● 경제활동 여성 ● 비경제활동 여성 ● 경제활동 남성 ● 비경제활동 남성 (단위: 천명, %)



자료: 통계청, 「지역별고용조사(각 연도 하반기)-원자료 분석」, 시군가중치 적용. <표 7-1>

비경제활동인구 및 활동상태(202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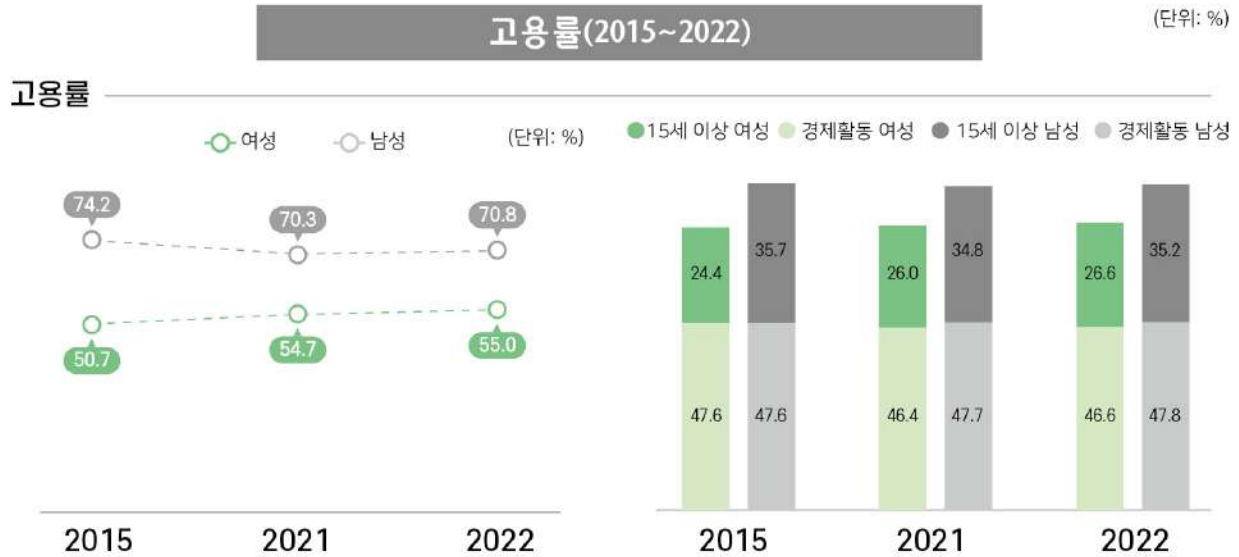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지역별고용조사(각 연도 하반기)-원자료 분석」, 시군가중치 적용. <표 7-10>

- '22년 하반기 기준, 경제활동상태는 여성 26.6천 명, 남성 35.2천 명으로 남성이 8.6천 명 더 많고, 비경제활동상태는 여성 20.1천 명, 남성 12.7천 명으로 여성이 7.4천 명 더 많음
- '22년 하반기 기준, 비경제활동 선택의 주된 사유는 여성은 육아 및 가사(69.4%), 남성은 쉬었음 (41.7%)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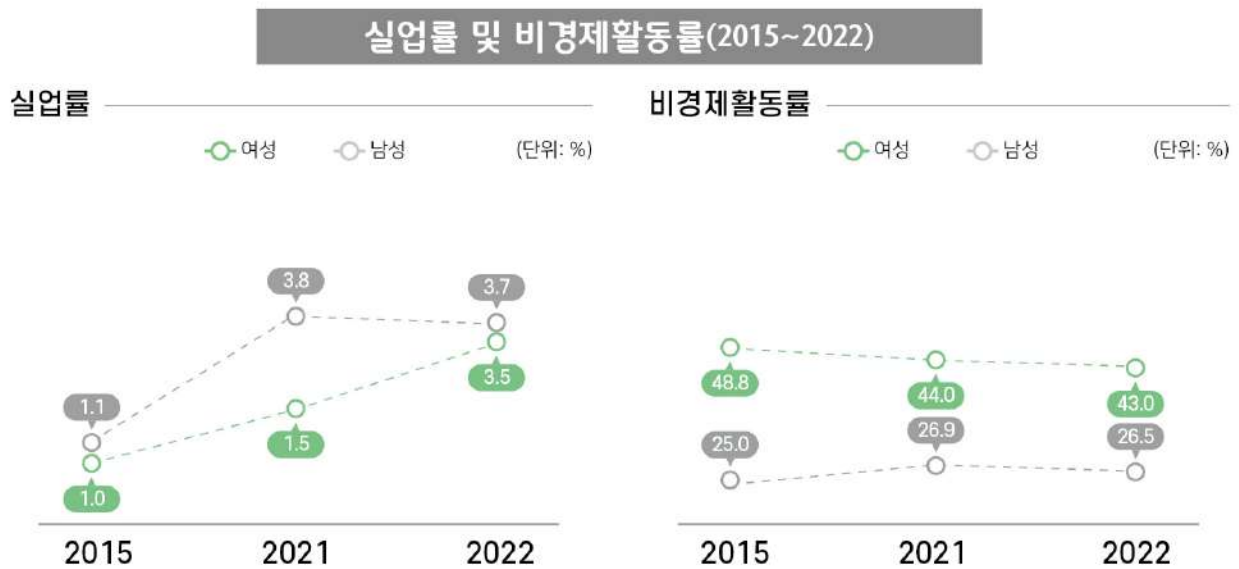
7. 노동 및 소득

경제활동

고용률과 실업률은 남성이 높고, 비경제활동률은 여성이 높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함



자료: 통계청, 「지역별고용조사(각 연도 하반기)-원자료 분석」, 시군가중치 적용. <표 7-1>



자료: 통계청, 「지역별고용조사(각 연도 하반기)-원자료 분석」, 시군가중치 적용. <표 7-1>

- 연도별 고용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항상 15%p 이상 더 높음
- '22년 하반기 기준,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'15년보다 감소했고 여성이 남성보다 약 800명더 감소함
- 실업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고, 비경제활동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음

노동시장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대부분 취업상태이며, 고령 남성이 여성보다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함

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(2015~2022)

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



65세 이상 고용률



65세 이상 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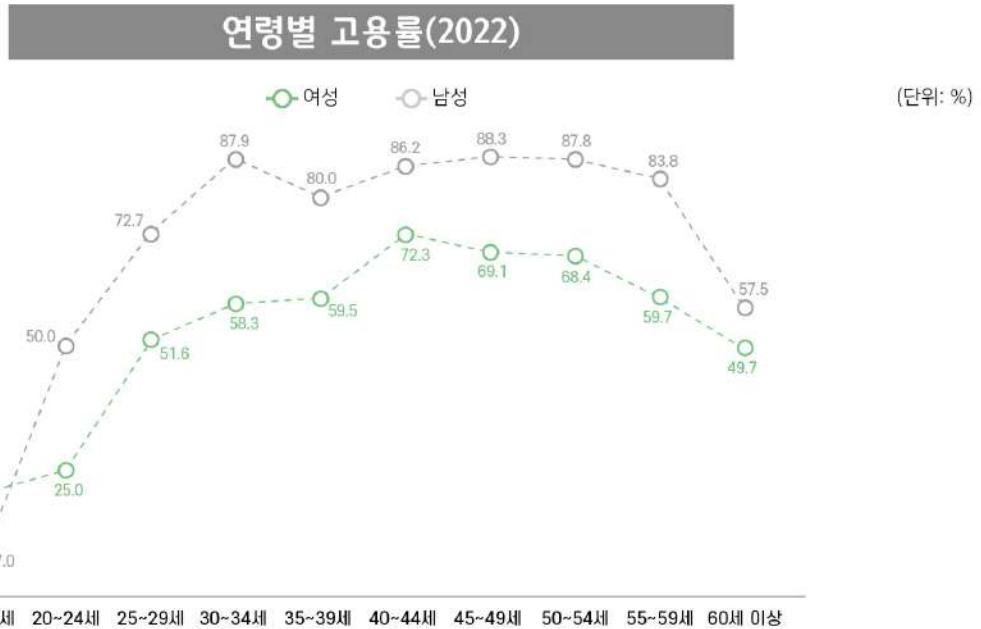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지역별고용조사(각 연도 하반기)-원자료 분석」, MDIS, <표 7-3>

- '22년 하반기 기준,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4.7천 명 더 많지만, 경제활동참가율, 실업률, 고용률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연도별 실업률은 매우 낮아 노동시장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고령 인구 대부분이 취업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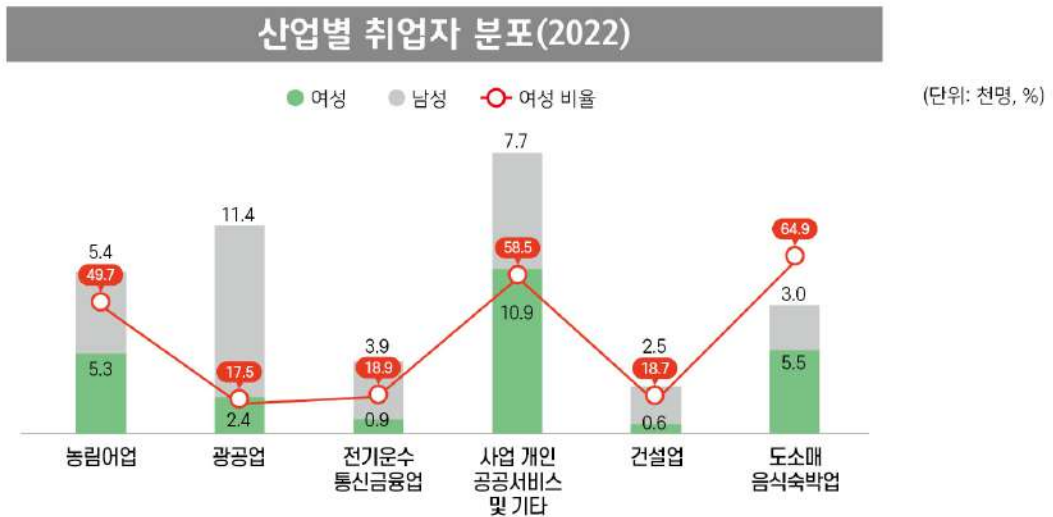
7. 노동 및 소득

경제활동

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패턴인 M자 커브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봤을 때 20~30대 여성의 고용률에 특히 어려움이 있음



자료: 통계청, 「지역별고용조사(각 연도 하반기)-원자료 분석」, MDIS, <표 7-2>



자료: 통계청, 「지역별고용조사(각 연도 하반기)-원자료 분석」, 시군가중치 적용, <표 7-14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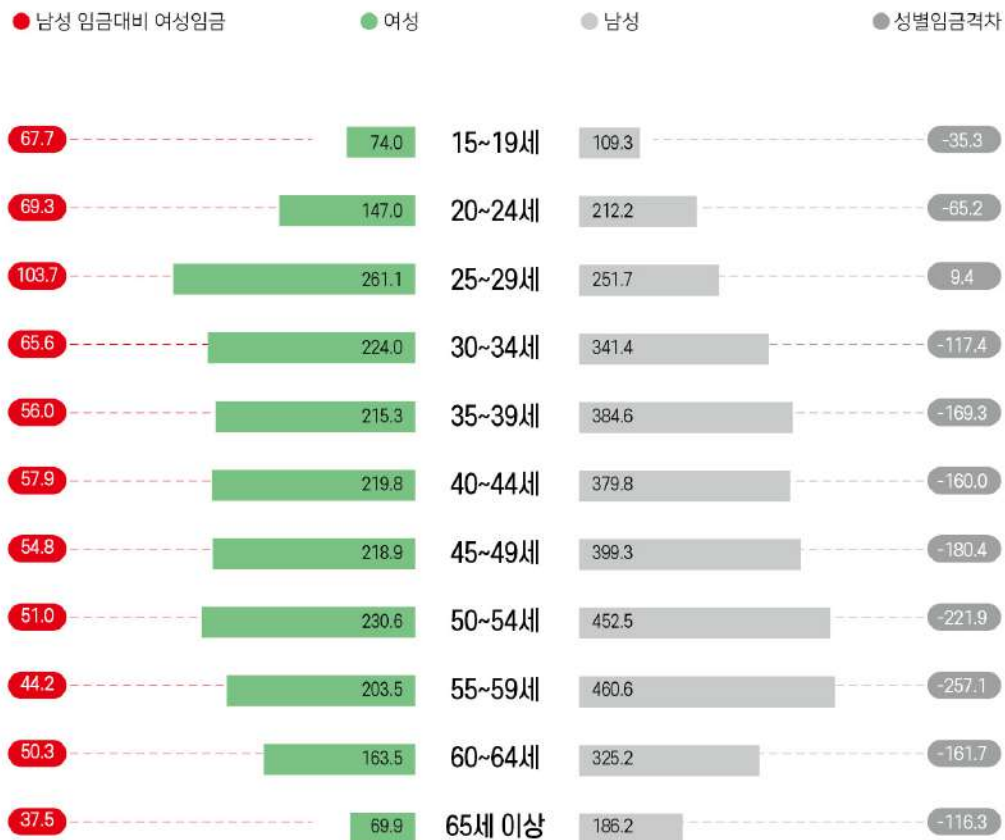
- 연령대별 고용률은 여성은 40~44세가 72.3%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45~49세가 88.3%로 가장 높음
- 여성 고용률은 증장년층이 가장 높고 남성은 25세 이후 꾸준히 높음
- 산업별 취업자 수는 여성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이 10.9천 명으로 가장 많고 남성은 광공업이 11.4천 명으로 가장 많음
- 여성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(64.9%)으로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(58.5%), 농림어업(49.7%) 순으로 나타남

근로여건

25~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여성보다 높았고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남

연령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 격차(2022)

(단위: 만원, %)



자료: 통계청, 「지역별고용조사(각 연도 하반기)-원자료 분석」, MDIS, <표 7-23>

- '22년 하반기 기준, 3개월간 월평균 임금수준은 여성은 25~29세가 261.1만원으로 가장 높고, 남성은 50~59세가 460.6만원으로 가장 높음
- 성별 임금차이가 가장 큰 연령대는 50~59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257.1만원 더 벌었고 남성임금 수준대비 여성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65세 이상(37.5%)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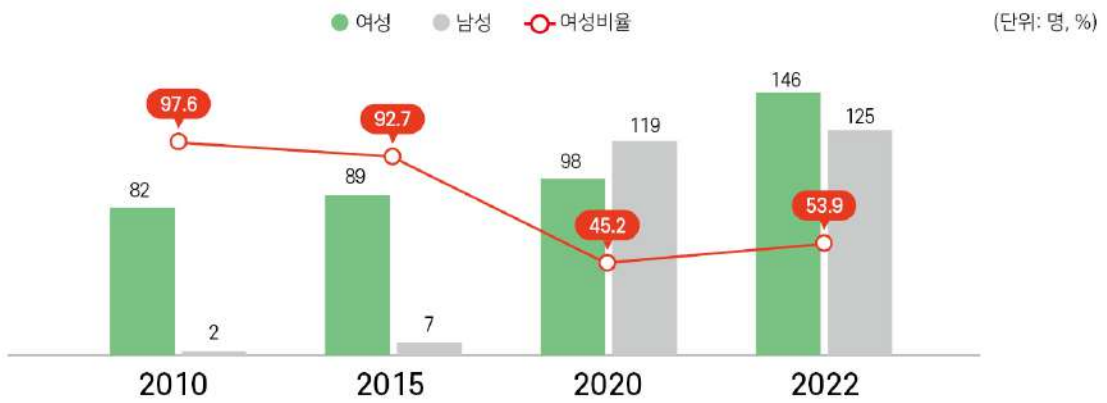
7. 노동 및 소득

근로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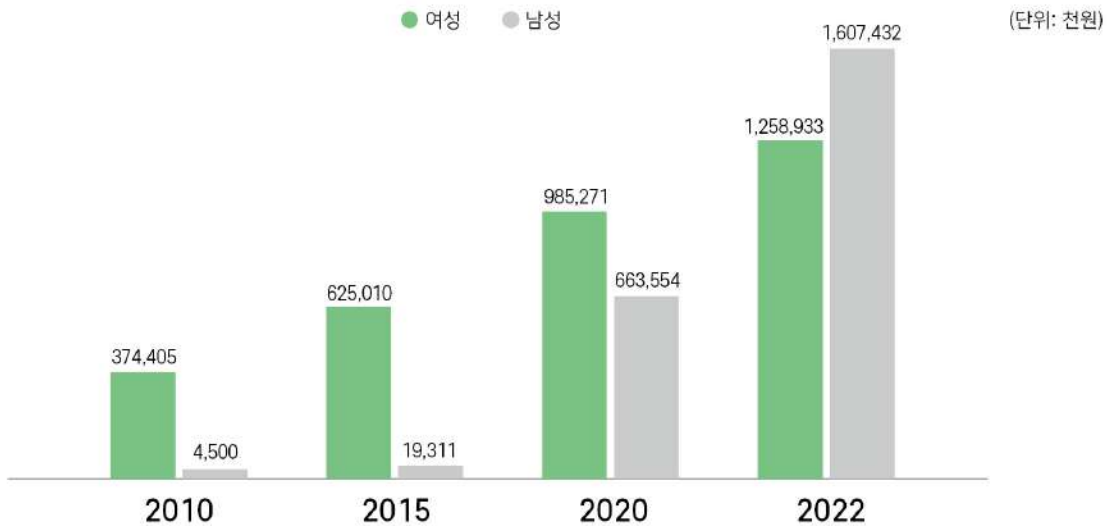
육아휴직 초회수급자수와 수급금액은 여성과 남성 모두 증가추세임

육아휴직급여 수급자(2010~2022)

초회수급자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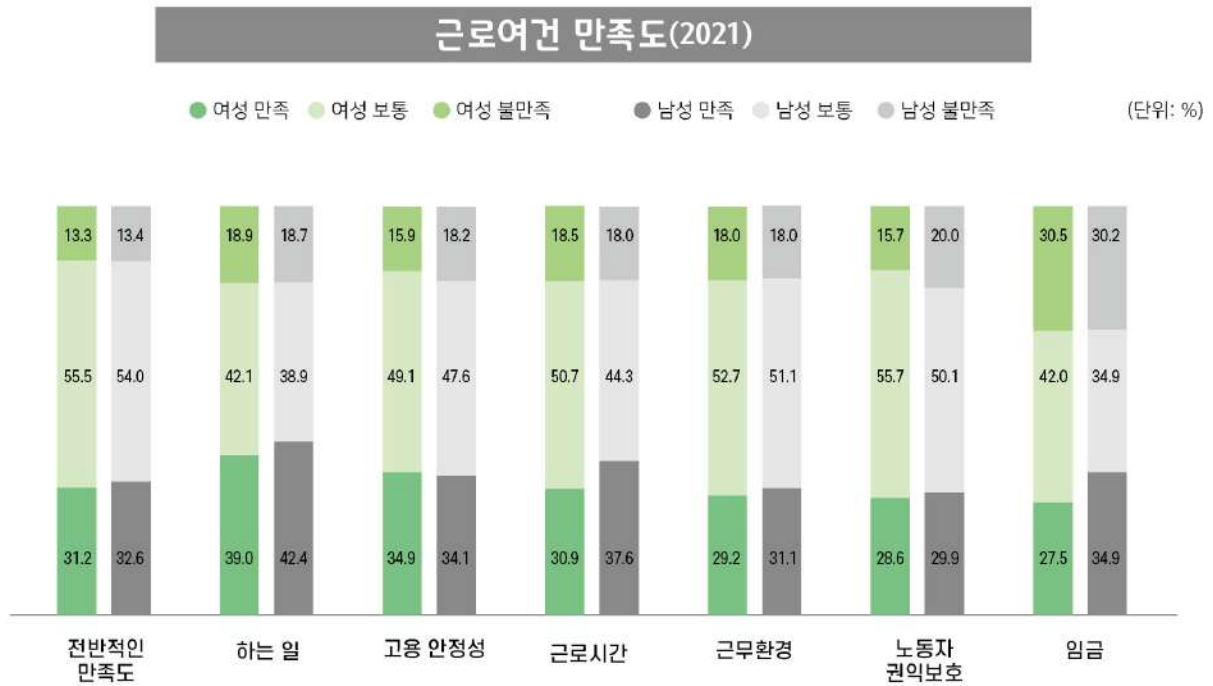
수급금액


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, <표 7-29>

-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수는 '22년 기준 여성이 146명, 남성이 125명으로 '10년 대비 여성과 남성 모두 증가함
- 육아휴직급여 수급금액은 '22년 여성 1,258,933천원, 남성 1,607,432천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48,499천원 더 많음

남성이 여성보다 더 노후에 대해 준비할 계획을 세우고, 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



자료: 경상남도. 「경상남도사회조사」, <표 7-30>



자료: 경상남도. 「경남사회조사」, 경상남도 빅데이터 허브 포털, <표 7-32>

- 남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 가장 만족(매우만족+약간만족)하고, 임금수준에 가장 불만족(약간불만+매우불만)인 것으로 나타남. 특히 여성은 임금수준에 대해 만족보다 불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음
- '21년 기준, 남성의 35.9%, 여성의 23.1%가 노후대비 소득보장 계획을 준비할 것으로 나타났고, 노후대비 소득보장을 준비할 능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